

開港期 文人들의 意識과 狀況 與件

金 容 稷*

Ⅰ

우리에게 있어서 開港期란 1876년에 이루어진 門戶開放과 함께 그 막이 오른 시기를 가리킨다. 이 시기의 特殊性에 비추어 여기서 文人의 뜻은 좀 범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겠다. 본래 文人이란 文筆活動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다. 그러나 開港期에 접어든 다음에 우리 주변의 事情은 적지 않게 특수했다. 우선 이 무렵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는 近代的인 意味의 作品 製作者 체제가 구축되지 못했다. 한 두 사람의 예외를 제쳐놓고 보면 대부분의 文筆人들은 政治·行政·社會·文化 活動에 從事하는 틈틈이 作品을 만들었고, 또한 그들은 발표했던 것이다. 이런 事情이 감안되는 경우 開化期의 文人들이 전문적인 作品 製作者에 국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얼마간의 作品을 써서 우리에게 끼친 사람들이라면 일단 文人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는 게 開港期의 경우이다.

다음 여기서 文人들의 意識이 효과적으로 파악되기 위해서는 일단 階層의 문제가 고려되어야겠다. 開港期에 이르기까지 우리 社會를 구성한 身分階層들은 물론 士農工商 등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文筆에 종사할 잠재력을 보유한 階層은 세가지 경우에 국한되었다. 우선 그 중 두 부류는 지방 儒林들까지를 포함한 士林階層과 일부 中人·胥吏階層이었다. 이들은 모두가 다소간의 漢文 구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詩文을 짓고 신변에 일어난 일을 記述·潤色해서 발표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그 밖의 다수 庶民階層, 곧 農·工·商에 종사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그와 달랐다. 그들은 대부분 文盲이어서 文筆活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開港이 이루어지고 난 후 우리 주변에는 一部 開化의 세례를 받은 庶民들이 형성되었다. 開化와 함께 우리 주변에는 近代的인 教育制度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庶民들에게도 近代的 教育을 받을 기회가 士林階層과 동등하게 부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開港後 우리 주변에는 文筆活動의 표현매체가 漢文專用에서 國漢文混用 쪽으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호응도는 保守的 性向을 띤 士林階層의 경우보다 庶民階層의 경우가 월등 높았다. 이런 大勢에 힘입은 것이 開化期 庶民들의 新學問 修學熱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제3유형에 속하는 開化 庶民出身의 文人 배출이다. 결국 開港期의 韓國社會에서 文人으로 活動可能한 유형의 사람들은 세 부류였다. 그들이 곧 士林階層 출신 文人들, 中人·胥吏 출신 文人들 및 일반 平民 출신 가운데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教授

開化의 세례를 받은 文人들 등이다.

[2]

開港期 文人들의 意識이 효과적으로 파악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時期의 特殊性이 고려되어야겠다. 세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韓國의 開化期는 舊體制 고수주의자들의 鎖國政策이 國庫를 맞이한 다음, 그에 따른 門戶開放으로 그 幕이 오른 시기이다. 그리고 이 때 門戶開放을 강요하고 나선 相對方은 바로 西歐 및 亞西歐 日本이었다. 다시 말하면 韓國의 開港期를 특징짓는 한 단면은 西歐 및 亞西歐 日本과 우리 社會의 교섭관계 속에서 빚어진 사태를 뜻했던 것이다. 그런데 門戶開放과 함께 西歐와 日本이 韓半島에서 노린 것은 영토확장의 야욕이었고, 경제적 침략의 효과적 수행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에 맞서 우리는 國權을 수호하는 가운데 西歐의 先進文明을 수용해 나가야했다. 그리고 나아가 富國強兵·自主獨立의 꿈을 실현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 무렵이다. 한마디로 反帝國主義 활동을 통한 國權守護와 近代化의 시도를 통한 富國強兵의 기틀 마련이 開港期 韓國社會를 특징지은 두 개의 行動指標 같은 것이었다.

反帝와 近代化 추진 시도라는 두 개의 가능자를 통해서 볼 때 開化期의 文人들은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區分 파악이 가능하다. 첫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儒林階層·士林出身의 文人들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은 일찍부터 尊周攘夷精神과 華夷思想에 깊이 침윤되어 있었다. 그리고 西歐에 대해서는 심한 선입견을 지니고 있어서 전혀 그들과의 교섭을 원하지 않았다. 이 경우의 한 보기로 우리는 華西 李恒老를 들어볼 수 있다. 그는 일찍 17조목에 걸처서 洋禍를 논했다. 다음은 그 허두에 쓰여진 부분이다.

지금 배우는 사람들로 능히 西洋의 禍를 알고 있다면 훌륭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西洋의 主張이 비록 천가지 만갈래로 위험듯하나 한갓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게 그 根本이며, 財物과 돈을 탐하고 연애나 하는 것이 그 方法이다.(今知學者 能知西洋之禍 則善人尙也. 西洋之說 雖有千端萬緒 只是無父無君之主本 通貨通色之方法).

華西의 이와같은 생각은 그의 학통을 이어받은 여러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가령 金平默을 보면 그는 「禦洋論」을 통해서 우리가 人間임에 반해 西歐가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人間이 제 스스로의 길을 버리고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물고기가 물에 오르고 짐승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다(故中國之人 我東之人 皆人類也……然則人類而棄人類之道 從禽獸之教 不亦同乎 魚之出陸而獸之入水哉). 이들의 意識을 支配한 것은 正統儒學의 입장이었다. 正統儒學의 생각에 따르면 人間이 人間인 까닭은 四端이라든가 五倫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西歐는 그 어느 것도 모르는 文化圈에 속했다. 따라서 그들은 異端과 邪惡이며 禽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와같은 行動哲學에 입각해서 門戶開放을 반대한 사람들을

斥邪衛正派라고 불려왔다. 그런데 이 유형에 속하는 文人들에게 邪惡이란 西歐만을 뜻하지 않았다. 그들의 邪惡의 개념에는 西歐의 충격이 물고온 일련의 사태까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 社會의 近代化를 위해서 중요한 주춧돌 구실을 한 체제개편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政治·經濟·文化·教育·行政 등 여러 方面에 걸친 改革 시도 역시 그들은 용인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民族意識의 고취와 民族文化의 정비·창달을 위해 관건 구실을 한 國語國字運動 역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정도다. 黃玿의 「梅泉野錄」에는 甲午更張을 다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서 그는 당시 우리 주변에서 시도된 國語國字運動을 일부 改革派 政務 擔當者들의 소행으로 보면서 그것이 漢文 排除 傾向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批判적인 태도를 취했다.

요즈음 서울의 官報와 地方의 文書가 모두 眞書와 諺文을 뒤섞어 쓰고 있다. 대개 日本의 글법을 본뜬 것이다. 우리나라 方言으로는 예부터 中國 글을 眞書라고 일컫고 訓民正音을 諺文이라고 하였으며 통틀어 眞諺이라고 말해왔다. 甲午更張 後부터 시무자가 盛히 諺文을 쳐들어 諺文을 國文이라고 하고 별도로 眞書를 멀리하여 가로되 漢文이라고 일컬었다. 이에 國漢文 석자가 드디어 方言이 되고 諺文의 일컬음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是時京中官報外道文移, 皆眞諺相錯, 以綴字句, 蓋效日本文法也, 我國方言, 古稱華文曰眞書, 稱訓民正音曰諺文, 故統稱眞諺, 及甲午後時務者盛推諺文曰國文, 別眞書以外之曰漢文, 於是國漢文三字完遂成方言, 而眞諺文之稱泯焉).

이와같은 斥邪派의 생각은 그들이 지켜야 할 正義의 개념을 舊體制固守 쪽으로 제한시켰다. 결과 그들에게는 反封建·近代化의 意識이 표면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제 1 유형의 경우와는 달라서 開港期 文人들 가운데는 능동적으로 西歐를 수용코자 한 사람들도 있었다. 제 1 유형에 속하는 文人들은 물론 강경 일변도의 名分論者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전면 부정과 배격을 의쳤음에도 불구하고 現實적으로 西歐는 우리에게 開港을 부득이하게 한 存在였다. 우리의 否定과 배격으로 이 엄연한 현실이 무산·기화될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門戶開放과 함께 西歐는 우리 주변에 계속 강한 충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들의 엄청난 軍事力이 그랬고 政治·經濟·教育·文化·制度의 內容이 그랬다. 우리가 부정·배격한다고 해서 그 충격이 해체·말소될 것도 아니었다. 斥邪派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 文人들이 意識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現實들이었다. 어차피 現實로 부각된 西歐였기에 이 類型에 속하는 文人들은 그것을 그 자체로 시인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일단 西歐를 是認하는 경우, 우리는 그 特徵의 斷面을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의 科學 文明은 停滯와 踏步를 거듭한 우리 것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活力에 차있고, 또한 機能의이였다. 反斥邪派의 입장을 취한 文人들은 이런 事實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능동적인 입장으로 西歐의 수용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우리 社會의 낡은 때가 불식될 것은 물론, 나아가 近代化의 지름길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제 1 유형의 文人들이 완고한 保守主義者들이었음에 반해 이들은 일종의 進歩指向型 文人들이라고 하겠다.

開化期 文人들 가운데 제 1·2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지닌 意識에는 각각 거기에 問題點이 내포되어 있었다. 제 1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國權守護, 反帝國主義의 견해를 지닌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들은 開港과 함께 우리 社會가 총력을 기울여 구축할 필요가 있었던 近代의 次元 개척에는 전혀 눈뜬 장님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제 2 유형에 속하는 文人들이 反封建의 次元 개척에 일역을 담당할 사실이 부인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지닌 對西歐意識은 너무 낭만적이며 안이한 편이었다. 앞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서구 列強이 門戶開放 이후 韓半島에서 노린 것은 植民地 개척의 가능성 타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活動은 궁극적으로 이 대진제에 그 끈이 닿아 있었다. 그런 그들이 우리가 自主獨立·富國強兵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近代化 作業에 일방적으로 施惠者의 위치에 설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제 2 유형에 속하는 文人들은 이런 事實에 대한 배려에는 전혀 결해 있었다.

③

제각기 限界를 보인 제 1 유형과 제 2 유형 文人들의 時代意識에 對해서는 그 후 곧 우리 주변에서 批判·修正의 손질이 가해졌다. 우선 斥邪派 소속 文人들의 정신적 지향에 대한 修正·補完作業은 다같은 士林階層 출신의 文人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정작 이 유형에 屬하는 文人들에는 朴殷植·張志淵·申采浩 등이 있었다. 이들은 제 1 유형의 文人들과는 달라서 西歐를 무조건 배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西歐의 또 다른 일면에 해당되는 침략적 야욕에 대해서 경계의 자세로 임한 게 이들이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民族的 自覺, 民族主義의 입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제 2 유형의 文人들이 지닌 낭만적 西歐追從論은 거듭 이들에 의해 재해석된 셈이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좋은 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丹齋 申采浩의 경우다. 그는 자신이 한때 관계한 大韓每日申報를 통해서 西歐의 帝國主義의 膨脹政策을 각명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그 對應策을 民族主義로 보았던 것이다.

神聖한 門羅主義가 白旗를 壹豎한 後로, 東西六洲에 所謂 六大強國이니 八大強國이니 하는 列強이 모두 滿腔血誠으로 此帝國主義를 崇拜하며, 모두 奪鬪爭先하여 此帝國主義에 屈服하여 世界舞臺가 一帝國主義의 活劇場을 成하였도다. 然則 此帝國主義로 對抗하는 方法은 何인가, 曰 民族主義를 奮揮함이 是니라. (…中略…) 錦강고 花같은 韓半島가 今日에 至하여 黯黑然 披靡然히 魔窟에 墜함은 何故요, 卽 韓人의 民族主義가 強健치 못한 所以니, 惟望컨데 韓國同胞는 民族主義를 大奮發하여 我族의 國은 我族이 主張한다.」하는 一句로 護身符를 作하여 民族을 保存할지이다.

—「帝國主義와 民族主義」—

이 유형에 속하는 文人들은 또한 民族主義의 구심력에 해당되는 民族意識 내지 民族的 自我를 확보하는 길에 대해서도 배려를 가졌다. 이들은 民族意識의 보유가 무턱대고 보수에 있지 않고, 民族의 精神의 結晶을 파악·보전·신장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國語國字의 정리 보급, 民族史의 인식·체계화 및 전래 풍속·습관·윤리·

도덕의 확보가 있다고 믿었다. 階層으로 보아 朴殷植과 申采浩는 保守儒林 출신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國語國字使用에 이들이 선구적 구실을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 두 사람은 다같이 韓國史와 우리 傳統文化에도 적지 않은 關心을 가졌다. 일찍부터 朴殷植과 申采浩가 韓國의 歷史와 그 文化에 關心을 가지고 그 연구·정리를 꾀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그 출신계층으로 보아 제 2 유형의 文人들에 맥락이 닿는 것으로 생각되는 쪽에서도 앞서 경우와 비슷한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제 2 유형의 文人들이 보여준 무조건 西歐傾倒에 대해서 이들은 한 中間過程을 설정했다. 그것이 主體의 力量, 主體性을 전제로 한 西歐受容, 進歩의 추구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유형에 속한 文人들에는 獨立協會와 新民會 등에 관계한 사람들이 있다. 우선 獨立協會가 進歩와 改革을 指向하면서 그 전제로 民族的 自覺을 다진 조직체였음은 세삼 밝힐 필요가 없는 일이다. 1895년에 발족을 본 이 조직체가 최초로 내건 사업목표는 事大의 遺物인 慕華館을 헐고 그 자리에 獨立門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 조직체는 또한 獨立公園을 만들었으며 시종 自主獨立과 富國強兵을 외친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그런가 하면 新民會는 그 조직 의도부터가 日帝의 침략 야욕에 맞서 싸우려고 한 전면 抵抗에 있었다. 다만 여기서 저항은 武力 또는 直接的인 鬪爭만을 뜻하지 않았다. 新民會의 抵抗에는 民族의 역량 확보와 그를 통한 文化·意識上의 문제까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文化·意識의 次元에서 저항이 시도되기 위해서는 더욱 主體性과 民族的 自我에 力點이 놓여질 필요가 있었다. 그 길을 이들은 개인의 능력개발·덕성함양과 공고한 단결이라고 보았다. 다음은 이 조직체에서 主導的 位置를 차지한 島山 安昌浩의 생각이다.

1. 독립은 타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자체가 독립할 자격이 있을 후에야 성취되는 것이요, 자기 힘으로 쟁취한 독립이라야 영구히 지닐 수 있는 독립이다.

2. 자력을 발휘하는 길은 첫째로 국민 각개가 분발수양하여 도덕적으로 거짓없고 참된 인격과 기술적으로 지식이나 기능을 적어도 한 가지씩 가진 유능한 인제가 되어야 한다.

3. 그러한 개인들이 뭉쳐서 신의로 협동할 줄 알아 공고한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 4 유형에 屬하는 文人들의 意識 역시 제 3 유형에 속하는 文人들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다같이 이들은 自主獨立·富國強兵을 우리 民族의 살길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西歐의 文化受容을 시인하는 가운데 그것을 民族的 自覺과 병행시켜야겠다고 본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이제 이와같은 사실은 이들 두 유형에 속한 文人들의 계보를 살펴는 경우 더욱 명쾌하게 파악된다. 가령 朴殷植·張志淵·申采浩 등이 儒林出身이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그것이 밝혀진 대로다. 그런데 이들은 萬民平等·宗教自由를 행동강령으로 한 獨立協會에 서슴없이 참가했다. 그런가 하면 安昌浩와 崔南善은 士林階層 출신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朴殷植·李相龍·李東寧 등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大韓協會와 新民會 등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양자의 습합상태는 물론 그 자체로서 바

람직한 일이었다. 그것으로 多數에 속하는 開港期 文人들의 의식이 時代狀況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圖表의 작성이 가능하다.

類型	出身階層, 行動의 性格	反帝意識	反封建意識	類型間的 相關關係
1	保守士林出身, 西歐受容反對	+	-	} 相反된 狀況意識
2	開化主義者, 舊體制反對	-	+	
3	士林出身, 西歐受容認定	+	+	} 共通된 時代認識
4	開化派, 主體性確保試圖	+	+	

[4]

이상 우리는 開港期 文人들의 類型과 그 意識을 네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살핀 범위 안에서 그 전개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점을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뜻밖이라는 느낌을 안겨주는 게 韓國近代文學史다. 세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韓國近代文學史는 그 허두가 開港期에서 시작한다. 그런 이상 거기에는 이상과 같은 文人들의 의식이 제 나름대로 반영되었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다.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 사정은 그와 전혀 반대로 나타나는 게 이 경우다. 開港期를 대표하는 韓國의 文學樣式은 唱歌와 新體詩이며 新小說들이다. 그런데 이들 여러 樣式에 속하는 作品 가운데 西歐 및 亞西歐 日本의 窺략야욕을 경계하고 民族的 抵抗을 내세운 作品은 거의 없다. 또한 西歐受容과 그를 통한 近代化의 次元 구축을 전제로 民族意識을 고취한 作品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 反해서 방향감각을 상실한 進歩와 改革熱에 들떠 있는 듯 보이는 作品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게 개화기문학이다. 다음은 李人植의 「銀世界」 가운데 일부다.

만일 이십년전에 개혁이 되었으면 이십년 동안에 나라의 힘이 크게 떨치지지는 못하였더라도 인민의 교육정도와 생활의 길이 크게 열려서 국가의 독립하는 힘이 유여했을 것이요, 만일 십년전에 개혁이 되었을 지경이면 오호만의(嗚呼晚矣)라, 나라 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때이라, 비록 남의 힘을 빌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개혁을 하였더라도 백공천창(百孔千創)의 꿩매지 못할 일이 여러가지라, 그러나 개혁한지 십년만 되었더라도 죽히 국가를 보존할 기초가 생겼을 터이라, 그리한즉 우리나라의 개혁조만(改革早晚)이 이해(利害)가 이러하거든, 정치 개혁은 아니하고 도리어 나라 망할 것만하였으니 그런 원통할 일이 있소?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銀世界」의 作者에게는 개화·개혁만이 문제되었을 뿐이다. 그 구체적인 방편 속에 西歐의 受容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방어가 효과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문제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입장이 다른채 初期의 斥邪派가 지닌 것과 똑같은 의미의 낭만적 태도라고 하겠다. 더욱이나 斥邪派에게는 國權守護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적의 영토적인 야욕 앞에 완전한 무장해체를 주장하

고 있는 것과 같은 意識의 착란상태가 검출된 뿐이다. 이제 우리가 궁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와같은 사태를 야기시키게 한 그 원인이다. 되풀이되지만 開港期の 우리 주변에서 활약한 대부분의 文人들은 전전한 狀況意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近代文學이 그들에 의해 담당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기되는 물음이 더욱 우리의 궁급증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물론 開港期 韓國文學의 현실감각 상실, 역사의식의 결여에 대해서는 그 빌미 일부가 우리 자체에도 있었다. 그 무렵 우리 주변의 작자가 본격적인 의미의 近代의 作品 제작 기법을 익히고 있었다면 실사 그를 에워싼 狀況이 다소 불리했다고 해도 寓話나 諷刺의 수법을 써서 자신의 제작 의도를 위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비슷한 이야기가 受容論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당시 우리 주변에 상당수 훈련된 독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要求에 따라서도 時代感覺을 저버리지 않은 作品의 製作은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결과 開港期の 文學은 그 자체안에 벌써 脫現實·反歷史의인 쪽으로 기울 공산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좀 더 조심스러운 사태의 分析者라면 개항기 문학의 의식을 형성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실들이 극히 부분적인 요인 구실을 했을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한국의 개화기 문학이 보여주는 脫現實·反歷史性이 그 실에 있어서 日帝의 事態誘導에 그 곤이 닿아 있음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일전쟁에서 戰勝國이 된 후 日帝는 한반도병탄을 기정사실화시켜 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표에 따라 그들은 차례로 우리 주권을 침탈하면서 한반도에 植民地體制를 구축해 갔다. 그런데 그들이 노린 바 차질없는 韓半島內的 식민지 체제 구축은 꼭 한가지 일을 先行시키는 것으로 가능했다. 그것이 우리 民族의 自我覺醒을 교란·마비시키고 그에 대처해서 文明·開化·舶來品 趣向을 부채질하는 일이었다. 日帝의 입장으로 볼 때 後者를 위해서 안성맞춤 격인 一群의 文人들이 당시 우리 주변에 있었다. 그들이 李人植 등 親日文人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재빨리 간파한 日帝는 곧 그들을 비호해서 韓國文壇의 주도권을 잡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중반기 이후 韓國 開港期 文學은 이들 親日文人들이 좌우하게 된 것이다.

한편, 親日文人들의 비호와 병행해서 日帝는 民族意識을 가진 모든 文人들의 활동을 견제·억압하기 시작했다. 특히 통감부 설치 이후 그들은 우리 주변의 모든 作品活動을 감시 통제했다. 그리하여 다소라도 民族意識을 고취할 김새가 느껴지는 글들은 가차없이 압수해서 폐기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1900년대 중반기 이후 우리 주변에서는 실질적 의미에서 反帝意識을 지닌 作品活動이 막을 내린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우리 주변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對應樣相이 빚어졌다. 상당수의 文人들은 日帝의 탄압·규제가 강화되자 文筆活動을 중단하여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草野에 파묻혀 이름없는 하나의 시민으로 늙어갔다. 다음 開港期の 一部 文人들 가운데는 조국 광복, 민족 해방 투쟁을 위해 挺身하고 나선 예도 있다. 朴殷植·張志淵·申采浩 등 다수 제3유형에 속하는 文人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한일합방을 맞이하자 잇달아 국경선을 넘었다. 그리고 실제 행동을 통해 日帝와 맞서 싸우는 직접 저항의 길을 택하기까지 했다. 이들 두 경우는 물론 타의, 또는 상황, 여건 때문에 本格 文筆活動의 길이 막혀버린 경우다. 韓國近代文學의 바람직한 진개를 위해서는 이런 사실부터가 적지 않게 서운한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사태는 일부 제 4 유형에 속하는 文人들의 경우에 야기되었다. 日帝의 더욱 심해지는 감시·규제·조종·탄압을 견디지 못해 제 4 유형에 속하는 文人들 가운데 일부는 民族意識의 고취와 그 구체적 표현에 해당되는 反帝鬪爭의 입장을 보류 내지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 그들의 글은 두 가지 性格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하나가 전혀 現實感覺·時代意識과 무관한 軟派·연애물이 되는 길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民族意識을 否定당한채 진보·개화의 꿈을 다뤄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도 그것이 바람직한 作品活動의 태도일 수는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韓國近代文學은 사나운 서릿발 속에서 시발한 문학이라 하겠다.

[참 고 서 적]

- 金胄熙(역), 「華西集」(大洋書籍, 1975).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1955).
 「朴殷植全書」(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78).
 「丹齋申采浩全集」(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1979).
 주요한, 「安島山全書」(三中堂, 1963).
 「六堂崔南善全集」(玄岩社 1975).
 「新小說·翻案小說」(3)(亞細亞文化社 1978).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首善社, 1948).
 慎鏞廈, 「獨立協會研究」(一潮閣, 1976).
 崔昌圭, 「近代韓國政治史」(一潮閣, 1972).
 韓祐勛,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 「韓國史研究」(2).
 金容稷, 開港期의 西歐的 衝擊과 新文化 受容, 「韓國近代文學의 史的理解」(三英社, 1977).